

2024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고린도후서

메시지 4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 — 본질인 생명 주시는 영과 내용인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편지를 씀

성경: 고후 3:1-6

- I.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가 건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건축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엡 4:11-16, 고후 3:18—4:1.
  - A.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딤후 4:6)로서 우리의 사역을 완수해야 한다(딤후 4:5).
  - B. 사역은 계시에 고난이 더해짐으로 산출된다(골 1:24, 고후 12:7-9, 빌 3:10). 이것은 우리의 걸사람은 고난의 과정(살전 3:3)을 통해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후 4:16).
    1. 나날이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되어야 한다 — 마 13:43, 잠 4:18.
    2. 우리는 십자가(고후 4:10-11, 16), 성령(딤후 3:5), 우리의 연합된 영(엡 4:23), 거룩한 말씀(엡 5:26)에 의해 새로워진다.
    3.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요일 1:7, 9, 행 24:16), 항상 사람들을 용서하고(마 18:21-22, 35, 엡 4:32, 5:2), 용서받기를 추구함으로(마 5:23-24) 새로움 안에서(마 26:29) 주님의 상에 와야 한다.
  - C. 사역은 우리의 존재의 표현이다. 인격이 메시지이다 — “생명이 흘러나가야 진정한 봉사이니 / 생활과 일 하나 돼야 참 열매 맺게 되네 / 산 체험 안의 말씀이 사람을 살려 내니 / 체험과 일치되어야 능력의 말씀이라.” — 찬송가 910장 1절.
  - D.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로서 우리의 사역을 완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극도로 사랑함으로 그분으로 채워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권위로 하여 그분을 다른 이들 안으로 넘쳐 흐르게 해야 하며(시 18:1, 91:14, 97:10, 116:1-2, 119:140, 요 21:15-17, 고후 5:14-15, 요일 4:16, 19, 민 17:1-10),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하며 수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계 3:18-22, 호 6:1-3, 롬 6:4, 7:6, 벧전 2:25, 5:1-4).
- II.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다 —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쓰였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떡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 고후 3:2-3.
  - A. 문법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이 절들에서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므로 또한 사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이다.
  - B. 고린도후서 3장 2절은 사도들의 마음에 대해 말하지만, 3절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의 마음에 대해 말한다. 동일한 편지가 두 범주에 속한 사람들, 곧 사도들의 마음과 믿는 이들의 마음에 쓰였다.
    1.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그리스도는 동시에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들 안에 기록되고 우리 안에 기록된다.

2. 한 번 쓸 때 한 편지의 두 원본이 나온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공급하는 이들의 마음에 있다.
  3.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이 편지는 또한 쓰는 사람들인 우리 안에도 기록된다. 그러한 사역은 두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포함한다 — 렘 32:39.
  4.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한 사람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한 사람을 결코 잊을 수 없다 — 고후 7:2-3, 6:11, 13.
- C. 새 언약의 사역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존재의 각 부분에 기록되시어 우리를 그분의 살아 있는 편지로 만들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다른 이들에게 표현되시고 읽히시고 알려지신다 — 고후 3:1-6.
  - D.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에 씌우므로 우리가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일하다 — 엡 3:17.
  - E. 살아 계신 하나님 자신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은 펜과 같은 도구가 아니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떡과 같은 본질이다. 사도들은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살아 있는 편지를 쓰기 위해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그 영은 먹이시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과 일과 성취를 가지고 계신 그 먹의 내용이다.
  - F. 하늘에 속한 복합적인 먹은 복합적인 영이다. 이 영-먹은 성도들 안으로 새겨져야 할 유일한 본질이고, 우리는 펜이다 — 빌 1:19, 출 30:23-25.
  - G. 우리의 체험에서 이 먹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 그분으로 철저히 적셔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편지로 만들 것이다 — 빌 1:19, 고후 3:6.
  - H.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선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선한 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마 12:34 하-35)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시 119:11). 그럴 때 우리는 시편 작가와 함께 “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해 드립니다. 제 혀는 준비된 작가의 붓과 같습니다.”(시 45:1)라고 말할 수 있다.
  - I. 새 언약의 사역에 관하여 예언하면서 예레미야서 31 장 33 절은 “나는 내 법을 그들의 속부분들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1.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3 장 3 절과 일치한다. 이 절은 믿는 이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편지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판이라고 말한다.
    2. 따라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 생명 주시는 영(고후 3:6)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에 기록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편지로 만드는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의 사역을 성취하는 것이다.

### III.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편지를 쓰는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 고후 2:10.

- A. ‘인격’이라는 헬라어는 직역하면 4 장 6 절에서처럼 ‘얼굴’이다. 이것은 눈언저리 부분으로서,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 주는 표정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표정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여 주고 나타내는 것이다.
- B. 믿는 이들의 본(딤후 1:16)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눈에서 표현된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 C.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장 가깝고도 친밀하게 접촉하며 그분의 눈언저리를 따라 행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적셔진 사람이었다.
- D. 바울의 타고난 생명은 부서졌고 심지어 끝났으며, 의지는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었고, 감정은 다정하나 제한받았고, 생각은 사려 깊고 냉철했으며, 그의 영은 믿는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향해 순수하고 참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믿는 이들이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E.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1. 우리는 외적인 상황과 환경과 여건보다 우리 영 안의 내적 안식을 더 관심해야 한다 — 고후 2:12-13.
2. 우리는 주님에 대해 체험하고 누린 것을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믿고 말해야 한다. 믿음은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 있고, 의심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다 — 고후 4:13.
3.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거룩한 영 안에서 처신해야 한다 — 고후 6:4, 6, 7:1.
4.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상쾌하게 되고, 다른 이들의 영을 상쾌하게 하고, 다른 이들이 상쾌하게 된 것으로 기뻐하기를 배워야 한다 — 고후 7:13.
5. 우리는 단체적인 방식으로 동일한 영 안에서 동일한 보조로 행해야 한다 — 고후 12:18.

**IV.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편지로 만들기 위해 본질인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과 내용인 그리스도로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사역은 하늘에서의 사역 안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도들의 마음의 주요 세 부분, 곧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돌보기 위한 것이다.**

- A. 성도들의 내적 존재 안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려면, 그리스도를 기록하려면, 우리는 ‘제자들의 혼은 견고하게 하여’(행 14:22)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자’(벧전 2:25)이신 우리의 주님과 동역해야 한다.
- B.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1) 주님과 그분에 관한 일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견고하게 하고(고전 2:16, 빌 3:10), (2)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권익을 위한 마음을 갖도록 그들의 감정을 견고하게 하고(막 12:30, 롬 16:4), (3) 그들이 강하여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행 11:23, 골 1:10, 살전 4:1).

**V.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 생명 주시는 영을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는 사역은 ‘그 영과 신부’에 대해 말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상 반절로 완결된다.**

- A.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엡 2:10)인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편지들이 되는 것의 최종 완결로서, 온 우주가 교회인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읽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엡 3:10).
- B. 그 영,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완전히 새겨지시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표현과 실재화인 그분의 신부로 만드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 계 19:7-9.
- C. 끝없이 영원토록 그 영과 신부는 하나님과 사람이 한 영으로 연합된 생활, 즉 축복과 기쁨이 넘쳐흐르는 탁월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